

성자와 늘 마음 일체, 사랑 일체다

(육의 불을 끄고 영의 등불을 켜라)

본 문 골로새서 1장 9절

*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 한 손, 혹은 양손 기본 제스처 하면서 보다 강조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자와 늘 마음 일체, 사랑 일체다.’ 라는 주제로 성자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자와 늘 마음 일체, 사랑 일체다.’ 인데요, <핵심>은 ‘**신령한 눈을 떠서 신령한 등불을 밝히는 것**’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행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얻게 됩니다.

선생은 이 말씀대로 했더니, 올해 <절식 기도 조건을> 다시 시작한 지 ‘5개월 20일째 되는 날 새벽’ 에 섭리사에 길이 남을 정말 엄청난 것을 다시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성자와 늘 마음 일체, 사랑 일체 되어 신령한 눈을 떠서 신령한 등불을 밝혀, 성자가 보여 주시는 것들을 꼭 보고, 성자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꼭 깨닫고 얻고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성자는 올해 수련회를 통해서 <하늘 언어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하늘 언어>를 배운 이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시대 말씀을 배우고 섭리역사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고 휴거되어 ‘신부’로 사는 데 있어서 <하늘 언어>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두 <시대 말씀>은 배워서 알고, 기도도 해 보면서 성자와 더욱더 소통하려고 하지만, 생활 가운데 성자와 교통하지 못하니 답답했고, 성자가 잘 느껴지지 않았고, 생각하려 해도 자꾸 잊어버리니 곤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생활 가운데 수시로 말씀하시며 ‘화’를 면하게 하시고, ‘사고’를 피하게 하시고,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데, <하늘 언어>를 모르니 모르고 행하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고, ‘받을 복’을 못 받기도 하고, 하늘과 자꾸만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늘 언어>를 배웠기에 ‘만물’을 보이며 수시로 말씀하시고, ‘양심, 감동, 생각, 마음’을 통해서 수시로 말씀하시고, ‘직감, 영감’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장 깊은 비밀과 구원받고 휴거되는 말씀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로 ‘하늘과의 대화’에 보다 자신감이 붙게 되었고, 예전보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 ‘하늘과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점점 차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자와 더욱 ‘마음 일체, 사랑 일체’ 되어 ‘신령한 눈’을 떠 ‘신령의 등불’을 밝히고 살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행하여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합당한 만물>을 보여 주면서 깨닫게 하며 말씀하

신다고 했지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여 줘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 성자가 똑같이 <깨끗한 물>을 보여 주셔도 순종자에게는 “네 마음이 깨끗이 정화된 물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불순종자에게는 “네 마음은 저같이 맑지 않으니 맑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 성자가 똑같이 <태양>을 보여 주셔도 순종자에게는 “네 마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저 태양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불순종자에게는 “네 마음이 저 태양같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 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빛을 발하여라.” 하고, 행할 때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똑같은 것>을 보여 주셔도 ‘각 사람의 생각, 정신 상태, 행위’에 따라서 각각 달리 말씀하시며 달리 깨닫게 하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1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자기 삶’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물컵에 3분의 1의 물이 채워져 있다 합시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짜증나게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하게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합니다.

그때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달리 생각하게 되고, 평소 ‘자기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삶’으로 인해서 달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

사람은 육적으로 살면 ‘마음과 생각’도 꿈쩍 못 하고 ‘육’을 따라가고,

이에 따라 ‘혼과 영’도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과 생각을 꼭 잡고 정신일도 하면 ‘육신’은 꼼짝 못 하고 ‘마음·정신·생각’을 따라갑니다.

★ 고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꼭 잡고 정신을 일도(一到) 하여, ‘육’을 꼭~ 잡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외줄을 타도 안 넘어지고, 절벽을 타도 안전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유혹과 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이 헤이해지는 대로 놔두고,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결국 ‘육신’도 고생하고 ‘마음과 생각’도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범사에 생활 속에서 마음과 정신을 꼭 쥐고 성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희망’으로 살게 되고, ‘천국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2

마음과 정신을 일도하면, 자기 혼과 일체 되어 ‘혼의 세계’가 보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중요

대낮에 불을 켜면 불빛이 잘 안 보입니다.

→ 이와 같이 ‘육신의 눈’을 뜨고 ‘육신의 불’을 켜고 있으면, ‘혼’이 잘 안 보입니다.

어둡게 해 놓고 불을 켜면 금방 불빛이 보입니다.

→ 이와 같이 ‘육신의 눈’을 감아 육신의 불을 끄고 정신일도 하면, ‘혼’이 잘 보입니다. <끝>

<육신>이 왕성하게 ‘육적 기능’을 하고 있으면, ‘영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육신 기능의 불’을 끄고 정신일도 해야 ‘영적인 혼’이라는 불이 보입니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중요

‘해 등불’을 꺼야 ‘별’이 보이고 ‘달’이 보입니다.

‘해 등불’을 켜면 ‘별과 달 등불’이 안 보입니다

둘 중의 하나를 꺼야 다른 하나가 보입니다.

육신이 기능을 할 때는 ‘육의 빛’이 있어서 <영적인 혼의 세계의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이는 마치 햇빛이 짙게 비출 때는 불을 켜도 불빛이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잠을 잘 때는 ‘육신의 눈’도 감고 ‘육적 기능’을 안 하니, 그때는 <영적 현상>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육신의 눈’을 감고 ‘성자께 집중’하고 ‘정신일도’하면 <영적 현상>이 잘 보이고, <성자>도 느껴지고, <깨달음>이 크게 오는 것입니다. <끝>

육적인 사람은 <영적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서 잘 못 봅니다.

그러니 더욱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영적이어야 <영의 세계>가 잘 보여 더욱 잘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육의 세계>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잡생각을 싹 버리고 마음과 정신을 일도 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만 한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선생이 ‘내 방의 불빛의 강도’를 낮추니, 서서히 ‘상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눈’을 감고 ‘육적 기능’을 멈추고 ‘정신일도’하면,

<혼의 세계>가 훤히 보입니다.

- 그래서 선생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 마치 길을 찾아가듯이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배경이 보이고, 한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혼이 보였습니다.

선생은 그 혼과 깊이 이야기하고, “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평생 사랑하면서, 삼위가 원하시는 일을 해 줘라.” 했습니다.

그 혼은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했습니다.

그리고 육계로 다시 돌아오니, 선생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육의 눈의 등불, 육의 기능의 불을 끄고 마음과 생각을 꼭 잡고 정신일도 하니,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따라서 내 혼이 활동한 것입니다.

- 그리고 선생이 ‘어떤 한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이렇게 구상하시어 때에 따라 완성하게 하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구상’을 보고 감사 감격하니, 성자는 너무나 엄청나고 깊은 인봉을 풀게 하셨습니다.

선생이 올해 <절식 기도 조건>을 시작한 지 ‘5개월 20일째 새벽’에 이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 귀를 막으면 안 들리고,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안 들리니, 들음으로 마음이 움직여 짓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안 보이니, 봄으로 마음이 움직여 짓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육적 기능의 불이 꺼지니, 영적 기능의 불이 켜지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 핵심 말씀 반복해서 말씀해 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적으로 살면 ‘마음과 생각’ 도 꿈쩍 못 하고 ‘육’ 을 따라가고, 이에 따라 ‘혼과 영’ 도 ‘육’ 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과 생각을 꼭 잡고 정신일도 하면 ‘육신’ 은 꿈쩍 못 하고 ‘마음 · 정신 · 생각’ 을 따라갑니다.

고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꼭 잡고 성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신을 일도 하여, ‘육’ 을 꼭~ 잡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외줄을 타도 안 넘어지고, 절벽을 타도 안전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유혹과 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살게 되고, 휴거되어 천국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 육의 눈을 감고 ‘육의 등불’ 을 끄고 마음과 정신을 일도 하면, ‘영의 등불’ 과 ‘혼의 등불’ 이 켜져 <영적인 깊은 것>을 보고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 부정의 눈을 감고 ‘부정의 등불’ 을 끄면, ‘긍정의 등불’ 이 켜지고 ‘긍정의 생각’ 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강하게 하면, ‘몸’ 도 긍정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휴거도 이렇게 이뤄야 됩니다.

◆ 의심의 눈을 감고 ‘의심의 등불’ 을 끄면, ‘믿음의 등불’ 이 켜집니다. 그때 성자의 말씀이 깊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면 ‘몸’ 도 강한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영원한 사랑’ 도 얻고, ‘참진리’ 도 얻고, ‘굳은 행실’ 도 얻고, ‘휴거’ 도 얻고, ‘천국’ 도 얻게 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생명의 말씀 7번 읽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